

“환대에 대한 불편함 이야기하고 싶었죠”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낸 이기호 작가
‘평범한 이름’에 관한 작가 특유의 관점
광주서 10년째 활동...올 여름 경장편 계획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선 공감의 필요함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더러 동정일 수도 있고 잘못 이해를 한 경우도 많죠. 이번 소설집은 환대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문학 습작기를 보내고 광주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기호(47). 그에게는 나름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작가라는 평이 따른다. 이효석문학상, 김소옥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황순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 평론가 신형철은 “2000년대 문학이 선사하는 여러 유포함들 중에서도 가장 ‘개념 있는’ 유포함 중의 하나”라고 평한 바 있다.

광주대 문장과 교수이기도 한 이기호 작가가 5년간의 신작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문학동네)를 펴냈다.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은 인상의 그는 창작 못지않게 말솜씨도 좋았다. 달변가라기보다 문장을 고르듯 대화를 술술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기자는 그와의 인터뷰를 갖고 신간 발간에서부터 광주에서의 창작 활동,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소설집은 지난 5년 동안 문예지에 발표했던 단편들을 묶어낸 결과물이다. 이 작가는 “원래는 작년에 펴낼 계획이었는데 교정지를 보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책으로 발간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앞섰다고 한다.

그간 한국 문학 대표적인 ‘유머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은 저자의 장기는 이번에도 펼쳐진다. 그러나 자세히 말



하면 작가는 웃음기를 거두고 “이 세계에서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워져버렸는지” 들여다본다.

평론가 김형중은 이기호의 소설은 “읽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부끄럽게”한다고 해석한다. 그것은 ‘당신의 환대는 정말로 환대받는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환대를 베푸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가’ 묻기 때문이다.

2017년 황순문학상 수상작인 ‘한정희와 나’는 환대의 불가능성, 소통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초등학교 시절의 아내를 맡아 키웠던 마석 엄마와 아내의 손녀 ‘한정희’를 조건 없이 환대한다. 마석 엄마와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환대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정희’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그림에도 부끄러움 없는 태도를 보이자 폭발한다. ‘나’가 ‘정희’에게 보인 환대에는 ‘폭력’이나 ‘뻔뻔함’ 같은 예상치 못한 요인들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이 묻는 지점은 정말로 무조건적인 환대는 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표제작 ‘누구에게나 친절한 강민호’도 그와 같은 연장에서 환대의 문제를 제기한다. ‘강민호’는 아내와 후배인 ‘윤희’에게 두루 친절하다. 그의 친절은 엉뚱한 오해를 낳아 윤희를 하잡 안에 가두게 된다. 그러나 강민호에게는 환대의 기억조차 없다.

이번 작품집에서는 ‘이름’에 관한 작가의 특유의 관점도 제시된다. 작가는 “소설에서 쓰는 인물의 이름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며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이 공감이고 환대”라고 덧붙혔다.

아닌 게 아니라 7편의 작품에는 최미진, 나정만, 권순찬, 박창수, 김숙희, 강민호 등과 같이 “평범해서 쉽게 읽힐 것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들인 인물들은 유머를 잃은 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가는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 ‘나’라는, ‘소설가’라는 작중인물을 앞세워 들여다본다.

“소설은 허구이지만 그 안에는 작가의 모습, 작가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숨어 있는 작가의 모습이, 이와 같은 방식이 지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물 뒤에 숨어 작가가 가르치는, 전체를 내려다보는 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형상화하고 싶었다고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이 허구적 산물이 아닌 생생하게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광주대 문장과 교수에 임용돼 지역으로 터전을 옮긴 지 만 10년. “이제는 광주 사람이 다 됐다”고 말하는 그는 “두 명의 아이를 광주에서 낳았고, 한 아이도 갖 돌이 지나 이곳에 와 광주는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지금이 더없이 좋다고 했다. “동네 분들과 커뮤니티도 잘 이뤄지고 있고, 아파트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광주에 녹아들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5년 가까이 서울에서 거주하던 때와는 다른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처음 광주에 내려올 때 주위에서 ‘지역의 배타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내심 걱정도 했지만, 살아보니가 광주처럼 좋은 도시가 없다는 거였다.

“올 여름에는 그동안 써뒀던 경장편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소설 쓰는 이기호와 가르치는 이기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제 작품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작품 창작을 결코 허투루 생각할 수 없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사진 이기호 제공

광주문화읽기



많은 교육자들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놀이수업’ 지도에 대해 연구하고 활용한다.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의 ‘놀이터’는 사라지고 있다. 과거 놀이터는 토레를 만나고 동네 어른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만나 사귀는 만남의 장이었다. “뒤편” “친구가 이겨하고 놀자”라고 하면 그냥 놀이 친구가 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과정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어디서 놀며 크고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놀지 못하고 친구와 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놀게 해줄까? 그 해답은 문화예술교육에 있다.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잊혀져가고 쓸모 없어지는 마을 놀이터에 아이들 스스로 생기를 불어 넣는 과정이다.

세 번째 놀이터는 숲을 통해 자연을 배우는 협동조합 산림문화연구소의 ‘숲속자연미술제-숲을 담는 아이’들이다. 도심 속에 백석산을 중심으로 숲이 인간과 공존하며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숲 아지트, 숲속 패턴 디자

놀이가 교육이다

아이들이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주말학교에 등록한 이후 그들의 주말이 변했다. 주말학교 입학식은 숲속에서 돛자리를 펴고 가족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매주 만들고 있는 장난감들과 친구들과 꾸미고 있는 아지트를 손 볼 생각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첫 번째 놀이터는 북구문화의집에서 개최하는 ‘바퀴달린 학교’다. 바퀴달린 학교의 비전은 ‘노작을 통해 경험을 배우는 어린이 예술학교’다. 마을 골목, 논둑길, 예술가의 작업실, 옥상, 고물상 어디든 교실이고 학교다. 교육과정은 생태건축, 인문예술교육, 아지트 캠퍼가 만들기 등 세 가지다. 아이가 창작자가 돼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아지트 캠퍼가 만들기 과정은 재미가 교육이 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놀이터는 서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시소학교’다. ‘시소’가 혼자서는 탈 수 없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놀이 기구인 것처럼 아이들은 시소학교라는 놀이터를 통해 자연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사람을 만나고 이웃 동물을 만나게 된다. 과정은 동네 장수 어린이 공원에 대한 탐색과 주변 자원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함께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의 집, 공원뒷길 디자인 등을 하는 공원프로젝트, 가구 만들기 프로젝트

이너, 숲 속의 사계 등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숲 놀이터이다.

지난해 야심차게 준비한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도시Ⅲ ‘목수축제-나는 어린이 목수다’ 캠프였다. 만드는 일이 곧 생각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의 조망만 한 손은 ‘생각하는 손’이 된다. 어린이 목수 축제는 한뼘쯤은 나만의 아지트를 꾸미는 아이들을 위해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 속에 나오는 악동들의 나무 위 오두막집처럼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보는 기회였다. 아지트를 완성한 성취감과 위함을 극복하고 학습한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놀이’는 예술교육을 전달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와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것,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이다. 놀이터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탐험가가 되고 협력가가 되고 예술가와 실천가가 된다. 동네와 마을마다 다양한 놀이터들은 곧 동네예술학교로 이어질 수 있다. 동네 예술학교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놀이터가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23일 대인시장 공개방송

광주국악방송의 프로그램인 ‘남도마실’에서 여름을 맞이해 야외 공개방송을 기획했다. 23일 오후 7시 대인예술夜市장 유별난 예술극장.

이날 방송에서는 정가, 남도민요, 판소리, 창작음악까지 다채로운 우리음악을 만날 수 있다.

남도마실 (월·금 오전 9시~11시, 진행 지정남)은 맛깔스러운 전라도 말과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며 청취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열한 번째 절기 소서(小暑)를 맞이해 준비한 여름 특집 공개방송 ‘하하 하소서(夏하하하) - 여름이 오는 소리’에서는 전통가곡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는 가객 정마리, 소리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선보여온 소리꾼 김소진, 힘찬 남도민요를 선보이는 소리꾼 박무성, 최재일, 대금의 맛과 멋을 표현하는 이창선 대금 연주가 출연한다.



지정남

김소진

이날 진행되는 공개방송은 소서 전날인 7월 6일 오전 9시부터 11시에 만날 수 있다.

라디오 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당터콩 플레이어’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채식주의자’ 영국 판매 15만부 돌파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사진’ 판매가 영국에서 15만부를 돌파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하여 영국의 유력 문예지 그란타 편집자인 앤 매도우스에 의해 밝혀졌다.

앤 매도우스는 서울국제도서전 주요 행사로 마련된 ‘한국문학 쇼케이스- 해외 출판인 초청 세미나’에서 “한강 작가처럼 최고 반열에 오른 작품을 더 많이 출간하고 싶다”며 “2015년 출간 후 이듬해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현재 15만부를 돌파했는데 영국에서는 대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